

해아본 『無量壽經連義述文贊』에 대한 소개

權 仁 瀚(성균관대)

1. 머리말

백제 웅천주 출신으로 신문왕 즉위 후 통일신라의 국사로 모셔진¹⁾ 경흥사^{憬興師}가 찬술한 『무량수경연의술문찬^{無量壽經連義述文贊}』(이하 <술문찬>으로 줄임)은 무량수경에 대한 해설서로서 1699년 일본 정토종의 학승인 기잔료조^{義山良照}(1648~1717)²⁾에 의해 간행된 귀증서이다. 이 책은 한국의 정토 신앙의 근본 경전으로서 그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오타니^{大谷}대학 소장본(이하 ‘오타니대본’으로 줄임)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판본에 대하여 이승재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無量壽經連義述文贊』의 異本 중에서 가장 시기가 이른 것은 일본 大谷大學 所藏本이다. …… 大谷大學本の 下卷 卷尾에는 華頂義山이 元祿 己卯(1699년)에 쓴 奥記가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책 광고에 ‘元祿十二年己卯冬發行 文化九年壬申(1812년)秋求板’이란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에 따르면 大谷大學本은 1699년에 판각된 판목으로 1812년에 刷出한 것이 된다.”³⁾

- 1) “神文王代 大德憬興 姓水氏 熊川州人也 … 文武王將昇遐 顧命於神文曰憬興法師可爲國師 不忘朕命 神文卽位 曲爲國老 住三郎寺”<『三國遺事』5·感通7·憬興遇聖>
- 2) 義山(1648~1717): 에도 중기 정토종의 학승. 字는 良照. 『無量壽經隨聞記』, 『觀無量壽經隨聞記』 등의 저술을 남겼다. 『WEB版 新纂淨土宗大辭典』 참조.
- 3) 이승재(2008b), 「한국 최초의 사전을 찾아서」, 『한국사전학』 제1호, pp.15-16. 밑줄 필자(이하 같음).

2007년 8월 초, 이승재·강인선 교수와 함께 오타니대학 도서관에서 구한 오타니대본의 복사본으로⁴⁾ 한자음 연구에 임해오던 필자로서는 이 교수의 지적을 계기로 ‘구판본求版本’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또한 <술문찬>의 초판본은 구할 수 없는 것인지 등등의 상념에 머물러 있었다.

2. 구입 경위

그러던 중 2021년 2월 19일의 “문헌과 해석” 모임을 계기로 필자는 <술문찬>의 새로운 판본의 존재와 그 구입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날 모임에서 『에도의 독서열』(스즈키 도시유키/노경희 역, 소명출판, 20201231)을 중심으로 ‘에도시대의 독자와 서적 유통 문제’에 대한 발표를 맡아주신 노경희 교수와의 장시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구판본’의 개념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다음은 노 교수의 설명).

구판본求版本: 에도시대에 구판 즉, 판권 구매를 통해 출판된 책. 일본에서는 17세기 중엽부터 출판이 영리 사업이 되면서, 출판 서점은 자신들의 출판물에 대한 출판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 권리를 ‘한카부_{版株}’라고 하는데, 이는 출판 서점간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판권을 구매하는 일을 ‘구판’이라고 한다. 구판할 때는 판목 그 자체도 매매하기 때문에, 에도 중기 이후 간기를 보면 구판과 추각한 것이 다수 보인다.

노 교수는 이어서 이승재 교수가 오타니대본을 “1699년에 판각된 판목으로 1812년에 쇄출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판목 그대로를 쇄출한 것인지는 원판과 비교해보아야 알 수 있을

4) 당시 자료 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줄저(2015), 『광개토왕비문 신연구』, 박문사, pp.392-393의 서술을 참조.

것이라는 설명도 보태었다.

그러나 1699년 판본(이하 ‘초판본’)과의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던 필자로서는 더 이상의 천착은 불가능하리라 낙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노 교수가 오타니대본 <술문찬>의 정확한 책명과 간행자 정보를 요청하였고, 필자의 답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 교수는 초판본이 일본의 한 고서점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다음의 웹 주소를 알려주었다.

https://www.kosho.or.jp/products/detail.php?product_id=151954659

전일본_{全日本} 고서적상 협동조합의 웹사이트(일명 ‘日本の古本屋’)에서 <술문찬>을 검색한 결과인 이 주소를 바탕으로 필자는 2월 22일 도쿄도 치요다구 간다진보초_{東京都 千代田区 神田神保町} 소재의 고바야시쇼보_{小林書房}에 온라인으로 주문하였고, 3월 9일 마침내 예상한 것보다 상태가 양호한 <술문찬>의 초판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책의 검색에서부터 온라인 주문에 이르기까지 필자를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노경희 교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새로 구입한 <술문찬>의 이본을 ‘해아본_{海阿本}’으로 이름짓고자 하거니와, 아래에서 해아본의 주요 특징 소개, 오타니대본과의 비교, <술문찬>의 자료적 가치에 대하여 약술하고자 한다.

3. 해아본의 주요 특징

3.1. 형태 서지

①서명: 无量壽經連義述文贊

-표제(제첨): 无量壽經連義述文贊 上(缺)·中·下

-권수·권미제: 无量壽經連義述文贊 卷上·中·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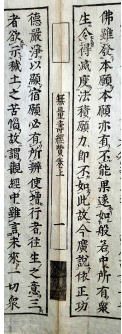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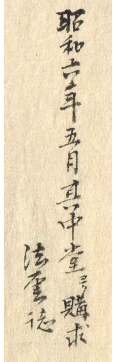
①-1 표제(제침) 상(훼손)/중/하



①-2 권수제=권미제 <상_1a, 42a/ 중_1a, 51b/ 하_1a, 44b>

-판심제: 無量壽經贊卷上·中·下 + 張次

-서근제: 大經述文贊上·中·下(右→左), 총책수: 共三(책등 하부)

			
①-3 판심/판심제 <상_1a~b>, 서근제, 총책수			⑩장서기 <상_뒤표지 불면>

②판심: 상-大白口 하-大黑口, 無魚尾

③크기: 19.3×27.4cm(책대), 14.5×20.8cm(반곽)

④판본: 목판본(和刻本)

⑤수량: 3권 3책

⑥장정: 4針眼線裝 (①-1 참조)

⑦판식: 4柱單邊, 無界, 10行 20字, 註雙行

⑧지질: 麻紙(?) ※楮紙의 느낌도 있는 듯.

⑨장서인: [河^何野](朱文小圓印), [權仁/瀚印](朱文圓印) (①-2 참조)

⑩장서기: “昭和六年(1931)五月其中堂ヨリ購求/法雲(※다음 면 참조)誌”

⇒장서인과 장서기로 추정해본 전(前) 소장자: 河野法雲(1867~1946)

-1867年 美濃国羽栗郡門城寺村의 河野稱名寺에서 寺族으로 出生.

-真宗大学教授를 거쳐 1934年 大谷大学学長에 就任.

-1935年 論文「宗祖聖人の神祇觀」發表, 1936年 学長에서 更迭당한 후, 宗門의 일체 직에서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귀환, 1946년 입적.⁵⁾

-河野法雲이 1931년 교토의 其中堂에서 구입한 <술문찬>의 초판본으로 판단되며,

그의 장서로 보관되어 내려오다가, 미상 시기에 후손이(?) 고서점에 내놓은 것으로 추정됨.

5) [河野法雲 - Wikipedia](#) 참조.

雨部 四画 雲

二八五〇

雲 唐 歐陽詢 行書千字文 雲 唐 太宗 晉 祠銘 雲 唐 太宗 溫 泉銘 雲 唐 褚遂良 枯 樹賦 雲 唐 褚遂良 哀 冊 雲 唐 則天武后 昇仙太子碑 雲 唐 李邕 李思訓碑	雲 明 黃道周 雲 清 包世臣 雲 奈良 伊福吉部德足墓誌 雲 奈良 和銅經 雲 東晉 王羲之 集字聖教序 雲 東晉 王羲之 興福寺斷碑 雲 唐 陸柬之 文 賦	雲 唐 柳公權 劉 沔 碑 雲 唐 李君夫人圓造墓誌 雲 唐 漢書董望之伝殘卷 雲 唐 文選 雲 北宋 蔡襄 謝賜御書詩 雲 北宋 徽宗 楷書千字文 雲 南宋 高宗 真草千字文 雲 元 倪瓚 雲 明 祝允明	雲 唐 歐陽通 道因法師碑 雲 唐 薛曜 夏日遊石涼詩 雲 唐 殷玄祥 契苾明碑 雲 唐 張少卿 屈元寿墓誌 雲 唐 顏真卿 郭虛己墓誌 雲 唐 顏真卿 竹山聯句 雲 唐 顏真卿 顏氏家廟碑 雲 唐 柳公權 神策軍碑	雲 唐 歐陽詢 皇甫誕碑 雲 唐 褚遂良 伊闕仏龕碑 雲 唐 褚遂良 孟 法師碑 雲 唐 褚遂良 雁塔聖教序 雲 唐 顏師古 等慈寺碑 雲 唐 孔穎達碑 雲 唐 王知敬 靖 碑 雲 唐 敬客 王居士塢塔銘	雲 隋 曹子建碑 雲 隋 孟顓達碑 雲 隋 龍華寺碑 雲 隋 蘇孝慈墓誌 雲 隋 智永 真草千字文 雲 隋 智永 閩中本千字文 雲 唐 虞世南 孔子廟堂碑 雲 唐 歐陽詢 九成宮醴泉銘 雲 唐 歐陽詢 溫 彥博碑	雲 北魏 楊大眼造像記 雲 北魏 鄭長欲造像記 雲 北魏 元順佛墓誌 雲 北魏 高宗續耿氏墓誌 雲 北魏 皇甫麟墓誌 雲 北魏 元融墓誌 雲 北魏 于纂墓誌 雲 北魏 元虔墓誌 雲 東魏 敬史君碑 雲 北齊 鄭述祖 天柱山銘	雲 4画 云 雲 魏 鍾繇 還示表 雲 東晉 王羲之 孝女曹娥碑 雲 劉宋 龔龍顏碑 雲 北魏 弔比干墓文 雲 北魏 鄭道昭 鄭義下碑 雲 北魏 鄭道昭 論經書詩 雲 北魏 張猛龍碑 雲 北魏 始平公造像記
---	--	---	--	--	--	--	---

3.2. 주요 내용 및 발문

1) 찬자: 釋 璟(→憬)興撰 (①-2 참조)

<전략>

경흥은 원효^{元曉}와 태현^{太賢} 등과 함께 신라의 삼대 저술가로 평가될 정도로 많은 저술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 전하는 것은 『무량수경연의술문찬』(3권)과 『삼미륵경소^{三彌勒經疏}』(1권), 『금광명경최승왕경약찬^{金光明最勝王經略贊}』(5권)뿐이다. 현전하지 않는 경흥의 저작으로는 『법화경소^{法華經疏}』(16권), 『열반경소^{涅槃經疏}』(14권), 『무량수경소^{無量壽經疏}』(3권), 『관무량수경소^{觀無量壽經疏}』(2권), 『아미타경약기^{阿彌陀經略記}』(1권), 『대집경소^{大集經疏}』(5권), 『약사경소^{藥師經疏}』(1권), 『관정경소^{灌頂經疏}』(2권), 『미륵경소^{彌勒經疏}』(3권), 『미륵경축의술문^{彌勒經逐義述文}』(4권), 『무구칭경소^{無垢稱經疏}』(6권), 『금광명경약의^{金光明經略意}』(1권), 『최승왕경소^{最勝王經疏}』(10권) 등이다. 비록 경흥의 40여 부에 이르는 저술 중 현재 남아 있는 것은 3종뿐이지만, 그의 저술은 불교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신라 불교 교학의 지형을 연상케 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경흥)]

2) 내용: 내의^{來義}·석명^{釋名}·해본문^{解本文}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내의는 아미타불이 오신 뜻을 밝힌 부분으로 그 내용은 ①정토^{淨土}의 인과^{因果}를 나타내어 보이기 위함이고, ②아미타불이 법장비구^{法藏比丘}였을 때 세운 48대원^{大願}이 헛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함이며, ③예토^{穢土}의 고뇌를 없애고 정토를 구현하려고 함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무량수경』이 『관무량수경』보다 뒤에 설해지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경의 제목을 해설함에 있어서는 먼저 『무량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역본^{異譯本}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서 서진^{西晉}의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한 것을 대본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셋째, 본문을 해석한 부분에서는 경의 대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량수경』의 내용을 열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①서론 부분[序說分], ②아미타불이 몸을 나타내어 성불^{成佛}하는 부분[現成分], ③설법을 청하는 부분[啓請分], ④본론에 들어가는 부분[敍興分], ⑤본론 부분[正說分], ⑥새롭게 태어나는

부분[生生分], ⑦믿음을 권하는 부분[勸信分], ⑧이 경을 설함으로써 얻는 공덕에 관한 설명[說益分], ⑨권청하는 부분[勸請分], ⑩가르침을 마치고 얻는 화회의 내용[畢喜分] 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 태도는 유식唯識의 입장을 취하면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숫자로써 표기하는 법수法數를 상세히 언급하였고, 범어梵語 원문의 번역에는 세밀한 곳까지 뜻이 통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본문 해석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범장비구의 48대원 중 제5원인 ‘중생을 섭수하는 원[攝衆生願]’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무거운 죄인 오역죄五逆罪를 범한 사람이 극락에 왕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저자는 오역죄를 범한 중생들이 정도에 태어날 수 없다고 보았던 여러 가지 주장들을 열거한 뒤,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왕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섭법攝法이라는 경의 표현에는 선善과 불선不善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그들의 참회를 가정한다면 마땅히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략>

이 책에서는 많은 경론經論과 고승들의 학설을 인용하고 있는데, 특히 원효元曉·의적義寂 등 신라 학승學僧의 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무량수경연의술문찬)]

3) 발문: 華頂義山 <하권 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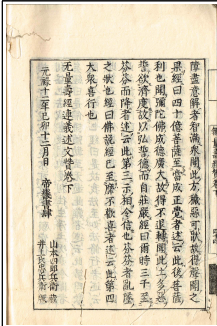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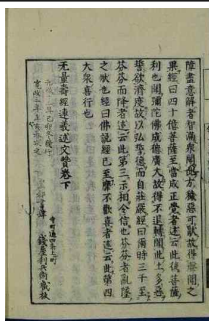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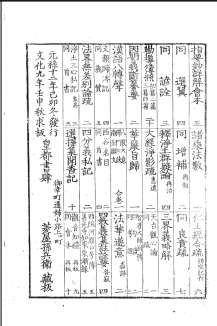


“아! 이 경에 대한 몇 가지 소(疏)가 있는데 마치 부처님의 말씀에 미묘한 장엄을 두른 것과 같구나. 그것들은 기이하고 진귀하며 미묘하고 공교하여 아름답게 꾸미고 장엄하였으며, 온갖 다양한 생각을 밖으로 펼쳐 벌여 놓았으니,

부처님의 덕은 더욱 추앙할 만한 것이 되고, 중생의 믿음은 다시 그 뿌리가 견고해졌다. <중략> 소는 진실로 경을 장엄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한번 크게 볼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영^{淨影=慧遠}이 지었고, 가상^{嘉祥=吉藏}도 지었으며, (신라의) 의적^{義寂}·법위^{法位} 등의 여러 이름난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지어 세상에 내어놓았다. 대사도 이것을 공구하고 공부하였는데, 누구보다 빼어나고 부지런히 연구했다고 할 만하다. 나는 일찍이 이 책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유행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왔다. 이제 찾아서 교감하고 가래나무에 새겨서 세상에 내어놓으니, 세상에서 법을 보는 안목을 갖춘 이가 이 책을 보고 의지하기 바란다. 원록^{元祿} 기묘(1699년) 납월 삭일 화정^{華頂}(에 사는) 기산^{義山}이 삼가 쓰다.”⁶⁾

4. <술문찬>의 제 판본

1) 판권지로 본 <술문찬>의 제 판본: 노경희(20210426)에 의거함.

		
①해아본 =元祿12년본(1699)	②현옥선본 =寬政 3년본(1791)	③오타니대본 =文化 9년본(1812)

- 6) “嗟乎此經而有幾疏，猶如佛陀而帶妙莊嚴乎。彼異珍妙工綺飾莊嚴，百千錯落張羅于外，則佛陀之德逾可仰，而群萌之信更固其根矣。-중략- 疏也實是經之莊嚴，而世之一大觀者也。以故淨影作焉嘉祥作焉。義寂法位等諸名流皆作焉而興。大師窮工于茲，可謂殊勤矣。予曾憂此書流行之不遠。今採而校讎繼之于梓以張于世，世之擇法眼乞觀而仰焉。時元祿己卯臘月朔日。華頂義山謹書”

①해아본

元祿十二年己卯(1699)十二月日

帝畿書肆 山本四郎兵衛(야마모토 시로베) / 井上氏忠兵衛(이노우에 츠베) 藏版

②훈옥선본 (경매 대기)

元祿十二年己卯(1699)冬發行

寬政三年辛亥(1791)春求之

皇都書肆 (寺町通四条上ル町) 錢屋利兵衛(젠이야 리헤) 藏板

③오타니대본

元祿十二年己卯(1699)冬發行

文化九年壬申(1812)秋求板

皇都書肆 (御幸町通姉小路上ル町) 菱屋孫兵衛(히시아 마고베) 藏板

⇒ <술문찬>은 최소 2회의 구판 출판을 통해 17세기말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일반에 유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2) 해아본과 오타니대본의 비교

①인쇄 상태 및 장서인 <상_1a 기준>



-전반적으로 해아본의 인쇄 상태가 양호함.

-해아본 본문 도처에 전 소장자의 주서朱書로 된 표점 부호 또는 난상 메모들이 있음. 추후 정밀 조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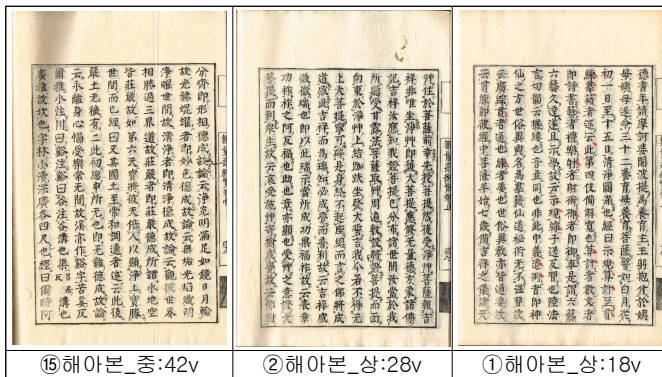
②판권 비교

- 오타니대본이 초판본의 판권 부분(하_44b_9~10행)을 파낸 후, 기간義山의 발문에 이어지는 자사의 출판물 광고 첫 면의 끝(10~11행)에 구판(求板) 사실 및 발행일을 새로 새겼음.
-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본간의 내용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5. <술문찬>의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

※7세기 중·후반 백제의 한자문화를 구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
 -<술문찬> 속에는 경흥사가 남겨둔 자음(字音), 자형(字形), 자의(字義)에 관한 풍부한 주석이 있음. 자형주: 13개, 자의주: 230여 개, 자음주: 60자 63개(최종 56자 59개)⁷⁾

- 예) ①綜子送反 習也, 陸法言 《切韻》云機縷也, 音並同也, 非此中義.<上18v>
 ②祚之阿反 福也 助也. 章亦顯也.<上28v>
 ③溪亦作谿字 苦奚反 《爾雅》水注川曰 谿, 谿注谿曰 谷, 谷注谷曰 溝也 <中42v> 등.



7) 자형·자의주의 현황은 李丞宰(2008a), 「7세기 말엽의 한국어 자료-璟興撰『无量壽經連義述文』의 註釋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20에 의한 것이고, 자음주의 현황은 權仁瀚(2021), 「고대 한국한자음의 연구(IV)-璟興撰『无量壽經連義述文』의 音注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32에 의한 것임.

- 자음, 자형, 자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은 이승재 교수에 의해 논의된 바 있음.⁸⁾
- 자음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로는 이토 다카요시(伊藤貴祥), 장리리(張莉莉)의 선행 연구 및 참고가 있음.⁹⁾
- 향후 백제 내지 통일신라의 한자문화 연구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 권인한(2015), 『광개토왕비문 신연구』, 박문사.
- 權仁瀚(2021), 「고대 한국한자음의 연구(IV)-釋璟興撰 <无量壽經連義述文贊>의 音注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32.
- 노경희(20210416), 「和刻本 『无量壽經連義述文贊』 서지 정보」, ms.
- 李丞宰(2008a), 「7세기 말엽의 한국어 자료-璟興撰 『无量壽經連義述文』의 註釋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20.
- 이승재(2008b), 「한국 최초의 사전을 찾아서」, 『한국사전학』 제1호.
- 伊藤貴祥(이토 다카요시)(2014), 「璟興撰 『無量壽經連義述文贊』 特異反切 研究-百濟漢字音의 干涉을 中心으로-」, 『구결연구』 33.
- 張莉莉(2018), 「璟興撰 『無量壽經連義述文贊』 反切 研究」,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명숙(역)(2014), 『무량수경연의술문찬』, 동국대학교출판부.
- 기타 『WEB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WEB版 新纂浄土宗大辞典』, Wikipedia 등.

8) 李丞宰(2008a) 및 이승재(2008b), 「한국 최초의 사전을 찾아서」, 『한국사전학』 제1호.

9) 伊藤貴祥(이토 다카요시)(2014), 「璟興撰 『無量壽經連義述文贊』 特異反切 研究-百濟漢字音의 干涉을 中心으로-」, 『구결연구』33, 張莉莉(2018), 「璟興撰 『無量壽經連義述文贊』 反切 研究」,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權仁瀚(2021), 위의 논문.